

누구나
안전한
온라인
수업
만들기

누구나
안전한
온라인
수업
만들기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모든 교육기관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는 대면 교육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지만 이제 온라인 교육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다양하고 넓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 혐오표현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오히려 더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수업 방식과 기기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여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기 시작하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모아 작은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의 다양한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들을 인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누구나 _ 온라인 수업 참여자 + 진행자 +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온라인 수업의 진행자나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방안을 생각합니다.

안전한 _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전한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참여자의 환경도 고려하여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온라인 수업 _ 기계적, 기술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실재감이 느껴지는 수업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원방법을 찾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며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목차

- 1 참여자가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 2 참여자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없다고 합니다.
- 3 참여자가 수업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 4 참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 5 참여자가 온라인 수업을 할 개인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 6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7 수업 전 참여자들이 입장하고 있을 때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 8 온라인에서 라포(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서먹함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 9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아이스브레이킹 팁을 알려주세요.
- 10 수업 중에 카메라는 꼭 켜도록 해야 할까요?
- 11 참여자 주변의 소음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12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기까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3 계속 혼자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업 중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14 혐오 표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15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온라인 도구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참여자가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 청소년 참여자일 경우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2021년 기준)
예 탈학교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 문의하세요.
- 수업을 주관하는 곳에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공용 공간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2

참여자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없다고 합니다.

- 청소년 참여자일 경우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스마트기기 대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세요. (2021년 기준)
- 각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PC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PC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3

참여자가 수업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 다양한 플랫폼 사용 안내 방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 필요하다면 사전에 미리 제공해 줄 수 있어요.
- 디지털 기기 사용이 낮은 참여자들을 위해 플랫폼 사용 방법을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지 수업을 주관하는 곳과 상의해보세요.

학생, 학부모용 화상수업 도움 영상

PC에서 참여하기 / 모바일(안드로이드)에서 참여하기 / 모바일(iOS)에서 참여하기



구글미트 (Google Meet)



팀즈 (MS Teams)



줌 (Zoom)



웹엑스 (Cisco Webex)



구루미 (Gooromee)

자료출처 : 2021 원격교육운영 도움자료_서울시교육청

4

참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참여자 또는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아요.
- 학습 내용 이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참여자가 학습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시각, 청각 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려울 경우 교육 주관 기관과 상의하여 수어, 문자 통역, 이미지, 문자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팅, 주석달기 등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참여자에게 확인하세요.

*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어요.
유형이 같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지원할 수 없어요. 지원이 부족해 소통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해 대체할 활동이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당황하지 말고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면 됩니다.



5

참여자가 온라인 수업을 할 개인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 수업 전에 카메라, 마이크 켜기를 어떻게 할지 참여자와 상의하세요.
- 같은 공간에 있는 가족들에게 카메라나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 참여자 가족들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수업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6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캡처 혹은 녹화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와 초상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참여자 모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참여자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진행자가 음소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두면 혼란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 수업시작 시간, 휴식 시간, 끝나는 시간을 안내해 주세요.
- 이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약속을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은 짧게, 2~3개 정도의 긍정적 언어로 표현해주세요.
- 약속은 서로의 신뢰임을 알려주세요.

7

수업 전 참여자들이 입장하고 있을 때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 참여자들이 입장하고 있는 시간에 진행자가 카메라를 꺼놓고 있으면 환대하는 느낌을 전하지 못할 것 같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기에도 어색하죠. 이럴 때는 수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 화면을 공유하고 그날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해 보세요.
(화면과 소리가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 필수!)
- 멘티미터(Mentimeter)의 워드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해 참여자들에게 그날의 기분이나 키워드를 적어보게 하고 시작 전 마음열기로 이어갈 수도 있어요.

음악을 재생하기 전 저작권을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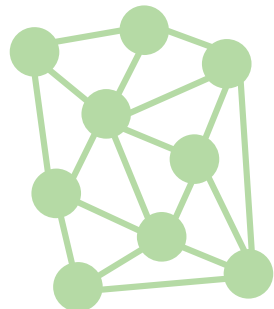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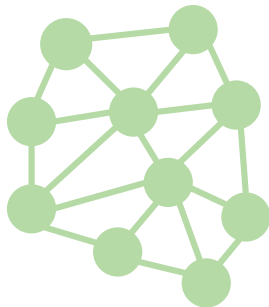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유 저작물 관련 사이트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https://www.youtube.com/channel/UCytsMcfYfft15PP8dkledVA/featured>
- 자멘도(영어, 음원):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영어, 음원): <https://freemusicarchive.org/>
- 프리사운드(영어, 음원): <https://freesound.org/>
- 씨씨믹스터(영어, 음원):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이미지): <https://www.flaticon.com/kr/>
- 픽사베이(이미지): <https://pixabay.com/ko/>
- 미리캔버스(디자인): <https://www.miricanvas.com/>
- 픽셀스(영상): <https://www.pexels.com/ko-kr/>

8

온라인에서 라포(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서먹함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 대면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실재감이 없는 가상의 공간이라 서먹서먹합니다. 온라인 환경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자가 먼저 나를 개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행자의 개방을 통해 참여자도 개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 비트모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 수업시간에 활용해 보세요.



9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아이스브레이킹 팁을 알려주세요.

- 몇 가지 아이스브레이킹 꿀팁을 소개합니다!

① 이름 바꾸기

자신의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날 불리고 싶은 별칭이나 내가 좋아하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영화 등을 소재로 이름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를 돌아가면서 설명해볼 수도 있고, 서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참여자를 자연스럽게 발견하면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② 물건 소개하기

비대면 수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참여자가 현재 자리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소개하기, 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 소개하기 등을 통해 서로의 공간과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거예요.

③ 릴레이 토크&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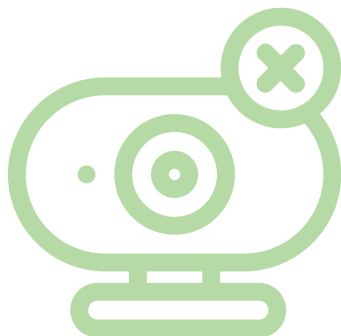
그 날의 마음을 나누거나 각자 원하는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하며 몸풀기를 할 때 다음 발표자를 지목해보는 거예요. 참여자가 모두 보이는 화면을 공유해놓고 손으로 화살표처럼 지목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호명하며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패스’예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원하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있고,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로 말하는 대신 채팅창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다면, 참여자들도 더욱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10

수업 중에 카메라는 꼭 켜도록 해야 할까요?

- 카메라를 억지로 켜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카메라를 켜고 참여할 때 참여자들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연결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안내해 보세요.
- 참여자가 카메라를 켤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카메라를 켜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11

참여자 주변의 소음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수업 시작 전에 마이크를 통해 소음이 들려서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나 불편한 소리가 전해질 때는 진행자가 임의로 음소거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합니다.
- 음소거 후에는 채팅(DM)을 통해 해당 참여자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무슨 일로 그런 소리가 났는지, 따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다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이후를 대처합니다.

12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기까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온라인 수업 중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그 시간이 훨씬 길고 고요하게 느껴져요.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참여자는 그 ‘침’에서 비로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소리 자극으로 인한 피로가 줄면서 서서히 수업의 메시지가 스며들 수도 있답니다.

13

계속 혼자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업 중 참여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 카메라로 보이는 참여자의 표정이나 끄덕임 등의 비언어적 반응, 채팅으로 던지는 질문이나 답변 등을 진행자가 확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럴 때 참여자들은 비록 온라인 공간이지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연결감을 느끼며 그 상황에 빠져들 수 있어요.
- 강의 중간 중간 참여자의 의견이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요.
 - ① 미리 함께 정한 몸짓으로 표현하기(손으로 동그라미, 끄덕끄덕, 도리도리 등)
 - ② 구글 설문으로 간단한 퀴즈 내기
 - ③ 패들렛을 통해 의견 묻고 답하기
 - ④ 채팅으로 답변하기
- 답변에 따라 수업의 난이도나 활동을 조정하며 참여자의 피드백을 수업에 반영해요.



14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온라인 도구에는 무엇이 있나요?

① 패들렛

답벼락, 캔버스, 타임라인 등 활동 (공유- 프라이버시- 작성기능 꼭 확인해주세요)

② 잼보드

구글미트 사용시 용이한 도구, 온라인 화이트보드, 포스트잇 작업이 가능함.

③ 슬라이도

온라인 설문조사 가능. (설문 기간 설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전에 설문 기간이 끝나있으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④ 멘디미터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한 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영어로 되어있어요. 크롬으로 접속하면 한국어로 번역됩니다.)

⑤ 카훗/ 핑커벨

간단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수업 전 후 진단평가가 가능합니다)

⑥ ALLO (구 비캔버스)

온라인 협업도구 프로그램. 처음 접할 때 이것저것 다뤄보세요.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⑦ 구글 제공 프로그램

구글 설문,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독스 등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
(동시 작성하는 경우 페이지가 넘어가면 다른 페이지에 글이 써지기도 해요.)

⑧ 듀랄

시각적 협업 프로그램 (30일 무료 이후에는 유료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⑨ 노션

협업 메모프로그램

- 참여자들이 도구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 ‘요즘 온라인 수업이 많아 도구 사용이 익숙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도 많이 있으니 자세한 설명을 꼭 넣어주세요. 온라인이라고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15

혐오 표현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혐오표현은 문구, 이미지, 말, 문자 등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어렵지만 즉각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참여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인권침해임을 꼭 알려주세요.
- 수업 중 발생한 혐오표현은 강력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지요.
오히려 가벼운 대응이 효과적일수도 있어요.
TIP '개소리가 지나갔군요', '식빵이 터졌어요', '개나리가 왜 찢지' 등
- 잠깐 시간을 내어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표현을 몇 가지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대항표현'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에 '혐오 발언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수께끼 전략



넌센트 퀴즈나 수수께끼 문제를 내자

가시 없는 장미 전략



예측하지 못한 칭찬으로 대답하자

침묵 전략



입을 닫고 받아주지 말자

어리둥절 현자 전략



전혀 엉뚱한 속담으로 대답하자



누구나 안전한 온라인 수업 만들기

저자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누구에게나 안전한 온라인 수업> 워킹그룹
한국호, 조신혜, 전세란, 장진희, 이경희, 박은정, 김종순, 강진미

디자인 아리에뜨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소 (014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아무르네 2층

전화 02-906-2018

이메일 info@dbnpo.kr

홈페이지 www.dbnpo.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